



2013년 1월 2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삼성전자와 경제민주화: 4,6,10,2와 서민의 재테크

• 이머징마켓 동향

지표 개선 호재로 중국증시 큰 폭 반등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맥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대덕GDS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석유정제, 넥센타이어, 와이솔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유가증권	구분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01/17(목)	01/18(금)
	종합주가지수		1,996.67	2,007.04	1,983.74	1,977.45	1,974.27	1,987.85
	등락폭		-10.13	10.37	-23.30	-6.29	-3.18	13.58
	등락종목	상승(상한)	372(9)	421(19)	264(11)	346(13)	345(4)	546(11)
		하락(하한)	444(0)	385(1)	538(2)	468(3)	451(2)	243(1)
	ADR		108.57	109.49	104.03	99.52	98.57	104.81
	이격도	10 일	99.58	100.00	98.90	98.85	98.92	99.72
		20 일	100.06	100.47	99.29	99.03	98.93	99.59
	투자심리		40	40	30	20	20	30
	거래량	(백만 주)	467	450	542	453	806	576
(십억 원)		4,364	4,280	4,376	4,228	4,031	3,830	
코스닥	코스닥지수		515.42	513.44	508.02	507.68	506.35	512.24
	등락폭		0.94	-1.98	-5.42	-0.34	-1.33	5.89
	등락종목	상승(상한)	451(11)	387(11)	293(14)	413(17)	384(14)	634(12)
		하락(하한)	469(1)	558(1)	626(3)	522(1)	543(2)	281(0)
	ADR		110.83	112.58	107.51	102.22	99.13	106.03
	이격도	10 일	101.99	101.17	99.88	99.69	99.29	100.30
		20 일	104.18	103.45	102.12	101.87	101.46	102.36
	투자심리		90	80	7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36	438	490	478	517	469
		(십억 원)	2,045	1,803	1,848	1,949	1,986	1,653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타
유가증권	매수	1,950.3	1,058.8	806.8	189.5	103.8	222.9	34.2	29.8	207.6	43.6
	매도	1,965.2	1,027.3	821.7	183.8	99.6	215.7	37.4	24.1	242.3	45.4
	순매수	-14.8	31.5	-14.9	5.7	4.2	7.2	-3.2	5.7	-34.7	-1.8
	01 누계	625.7	-139.7	-417.0	-256.0	189.5	-456.7	-125.7	-1.5	241.9	-68.9
	13년 누계	625.7	-139.7	-417.0	-256.0	189.5	-456.7	-125.7	-1.5	241.9	-68.9
코스닥	매수	1,509.1	73.4	71.2	10.3	9.9	21.7	4.6	2.1	19.1	17.8
	매도	1,540.8	59.7	55.0	7.7	7.0	14.1	3.4	2.4	18.3	16.0
	순매수	-31.7	13.8	16.2	2.6	2.8	7.6	1.2	-0.3	0.8	1.8
	01 월 누계	-93.6	9.6	92.2	16.6	10.7	55.4	6.3	-2.5	9.4	-8.1
	13년 누계	-93.6	9.6	92.2	16.6	10.7	55.4	6.3	-2.5	9.4	-8.1

삼성전자와 경제민주화: 4,6,10,2와 서민의 재테크

1월 월간 밴드	1,950-2,08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4배
12MF PBR	1.05배
Yield Gap	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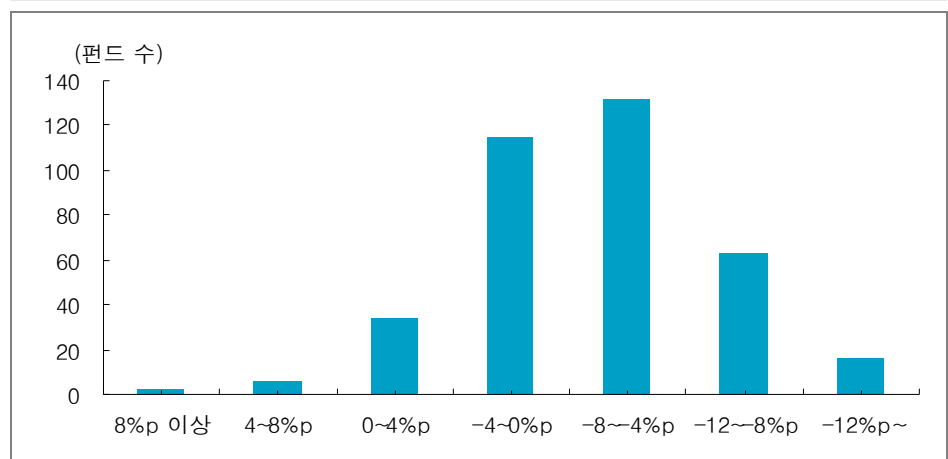
- ▶ 2012년, KOSPI 200 수익률을 상회한 펀드는 12%에 불과
- ▶ 삼성전자 효과와 4,6,10,2
- ▶ 서민 투자자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

■ 2012년, KOSPI 200 수익률을 상회한 펀드는 12%에 불과

2000년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모의투자실험에서 원숭이가 펀드매니저를 이겼다는 실험 결과는 주식투자가 얼마나 어렵고 운에 좌우되는가를 설명하거나, 인덱스펀드의 이점(저렴한 비용)을 강조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다.

국내 주식형 펀드들이 2012년에 기록한 성과 역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펀드 운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392개의 평균 수익률은 6.1%로 KOSPI 수익률 9.4%, KOSPI 200 수익률 10.9%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분석 대상 펀드 중에서 KOSPI 200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한 펀드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KOSPI200(90%)+CD(10%)로 구성된 좀더 현실적인 벤치마크(수익률 8.8%)를 기준으로 해도 초과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비율은 25%에 그쳤다.

[그림 1] 2012년 주식형 펀드의 성과 (KOSPI200 대비 초과 수익률)



자료: 제로인,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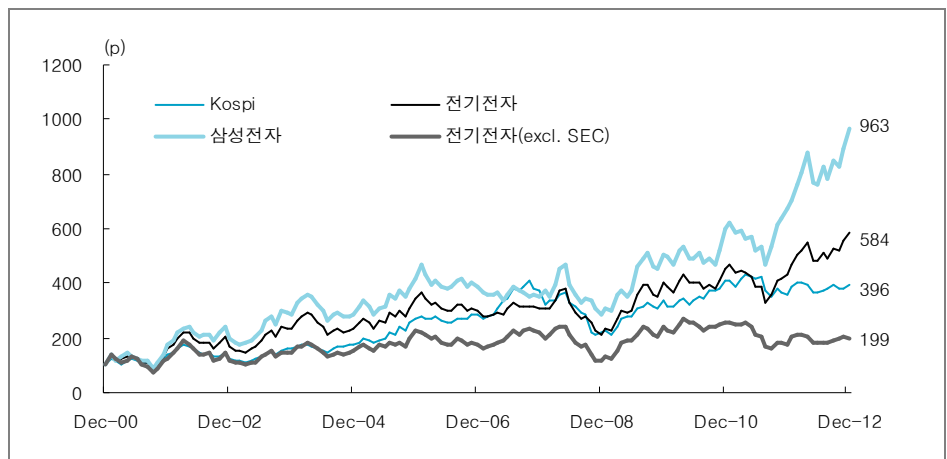
아마도 이 비율만 보면 펀드에 돈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물론 주식형 펀드가 항상 이렇게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2012년의 성과가 특히 저조했던 것은 시장의 흐름이 펀드매니저가 대응하기 어렵게 흘러간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 효과와 4,6,10,2

2012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60.4%로 위에서 언급한 KOSPI 수익률이나 KOSPI 200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결국 한국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비중에 따라 펀드 성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펀드는 삼성전자를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로 채워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좋으면 펀드 성과는 시장 수익률을 밑돌기 쉽다.

삼성전자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것은 비단 2012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KOSPI는 지난 12년간 약 4배가 올랐다. 그 사이에 유가증권시장의 전기전자업종지수는 6배가 올랐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늘 IT를 부르짖었던 전략가들의 주장이 잘 들어맞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기전자업종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룹으로 나누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12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약 10배가 올랐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기전자업종지수를 다시 산출하면 겨우 2배가 올라 시장지수의 절반에 불과하다. 상당 수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한도까지 채우고 남은 섹터 비중은 다른 전기전자종목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림 2] KOSPI, 전기전자업종, 삼성전자의 투자 성과



자료: 한국투자증권

■ 서민 투자자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81조와 동법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는 10%(동일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가총액비중)로 제한되어 있다.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한국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주식형 공모펀드는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없는 일반 서민이 채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투자금액이 큰, 소위 큰손 투자자는 PB의 밀착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어 이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동일종목 보유한도 10%룰이 만들어진 것은 물론 펀드운용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역설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역진적인 소득분배를 강화시켜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지금의 10%룰은 한국시장의 현실에서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정으로 보인다. 주요 연기금들도 예전에는 10%룰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난 몇 년간에 걸쳐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지금은 수익과 위험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에 대해서, 주요 연기금들은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공모펀드도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법령의 개정은 국회를 거칠 것 없이 시행령 80조의 국무회의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

지표 개선 호재로 중국증시 큰 폭 반등

- ▶ 중국 국가통계국, 2012년 연간 GDP 성장률 7.8% (2011년 9.3%)
- ▶ 중국 국가통계국, 4분기 GDP 성장률 7.9% (3분기 7.4%)
-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70개 도시 중 54개 도시 신축주택 가격상승 (11월 53개 도시)

■ 중국 시장

상해증시 사흘 만에 급반등.
GDP 등 지표 호조로 경기
회복 기대 강화.
부동산, 은행, 가전, 자동차
업종 급등

상해종합지수가 사흘 만에 큰 폭 반등했다. 거래금액은 1,054억 위안으로 직전일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8분기 만에 반등하고 12월 생산, 소비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 호재였다. 4분기 GDP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경기회복세가 확인됐다. 그 외 올해 GDP 성장 목표치가 지난해와 같은 7.5%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연간 4대 은행의 대출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높은 3조 위안으로 설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정책행보에 대해 기대가 높아졌다. 12월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부동산주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경기민감주인 가전과 자동차, 신종플루 환자 발생 이후 수혜 기대로 헬스케어 관련주도 급등했다. 전 업종이 강세로 마감했고 부동산(+2.8%), 농/목/어업(+2.3%), 운송(+2.2%), 은행(+2.1%), 석탄(+2.0%), 전력(+1.9%), 가전(+1.9%), 자동차(+1.8%), 기계(+1.8%), 화학(+1.7%), 헬스케어(+1.6%), 시멘트(+1.5%), 보험(+1.5%), 여행(+1.3%)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 홍콩 시장

미국 및 중국 지표 개선
호재로 H지수 2%대 급등.
산업재, 소비재, 금융주
동반 강세

홍콩 H지수도 2% 이상 급등하며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주택착공 실적도 예상을 웃돌았다. 미국의 주요 금융, 유통주 실적 호전도 매수 심리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GDP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것이 지수 상승폭이 확대된 주된 배경이었다. 업종별로는 농업, 석탄, 보험, 석유/천연가스, 통신, 은행,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전력설비, 유통, 헬스케어, 가전 등 대다수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8(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17.07	1.41	3.30	2.11	2.11
홍콩 H	12,105.71	2.09	2.22	5.85	5.85
인도 SENSEX	20,059.51	0.48	2.01	3.26	3.26
러시아 RTS	1,602.83	1.10	1.98	4.97	4.97
브라질 보베스파	62,194.06	0.66	0.84	2.04	2.04
베트남 VN	454.16	-0.57	-1.84	9.77	9.77
MSCI 이머징마켓	1,073.15	0.18	0.01	1.70	1.70

주: 18일 오후 5시 1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아시아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속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으로 코스피, 코스닥 동반 강세

- 미국증시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택지표와 고용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 마감. 이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오름폭을 축소, 장중 1,970P선까지 하락했으나,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외국인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며 나흘만에 상승세로 마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 이상 급등, 510P선을 회복하며 닷새만에 반등에 성공. 예상치를 상회하는 중국의 성장을 발표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며 아시아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운수장비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전선은 계열사 대한광통신의 실적 호조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차기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관련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창업투자, 신공항, 태양광 등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아울러, 올해부터 고효율 조명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확대되며 LED 조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루멘스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 회담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양국간의 협력 사업으로 부각된 철도, 가스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냄. 반면,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가 전력구매 상한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SK가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대한전선(001440) ▶4,195(+5.67%)	자회사 실적 호조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광통신케이블 전문 계열사인 대한광통신이 올해 초 광복합가공지선 수주잔액 14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매출을 초과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한편, 동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5곳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남부터미널 외에 서울 강남지역 빌딩 등의 매각을 추진 중
LED 관련주	LED 조명 시장 성장 기대감에 강세 -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백열전구를 고효율 조명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LED 조명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루멘스(038060, +11.40%), 사파이어테크놀로지(123260, +10.03%), 금호전기(001210, +8.82%), 아이엠(101390, +6.06%), 서울반도체(046890, +5.08%) 등 강세
태양광 관련주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 국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태양광 의무보급 물량이 5년에서 4년으로 압축 시행되는 등 정책 수혜 및 중국의 태양광 산업 확대 기대감에 강세 - 웅진에너지(103130, +13.86%), 주성엔지니어링(036930, +8.08%), 티씨케이(064760, +7.85%), SDN(099220, +5.51%), 오성엘에스티(052420, +3.96%) 등 강세
가스관 관련주	한-러 정상회담 기대감에 강세 -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취임식에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양국간의 경제 협력 활성화 기대감에 동반 강세 - 유성티엔에스(024800, +12.30%), 대동스틸(048470, +11.97%), 동양철관(008970, +6.92%), 하이스틸(071090, +6.03%), 스틸플라워(087220, +4.07%)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에스맥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에스맥 (097780)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2. 12F	454	30	23	1,506	12.5
	2013. 12F	659	46	35	2,205	7.8

- 편입 제외 종목: 대양전기(시세탄력 부진으로 제외 -5.4%)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LG (003550)	64,900 (-3.1)	67,000 (1/3)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문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 예상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의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MDS테크 (086960)	14,750 (+9.3)	13,500 (1/2)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장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3,050 (-4.0)	13,600 (1/2)	- 크롤러크레인 트랙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투 트랙 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계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320 (-6.9)	4,640 (1/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4,350 (+4.4)	13,750 (1/2)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대덕GDS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대덕GDS (003550)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2. 12F	471	44	40	1,768	10.0
	2013. 12F	578	58	49	2,156	8.6

- 편입 제외 종목: KCC(시세 탄력 약화로 제외 -3.6%)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농심 (004370)	294,000 (+8.1)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3.3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LS (006260)	89,900 (-5.4)	95,000 (1/2)	13,604	596	356	12,829	7.0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성전자 (005930)	1,480,000 (-6.1)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8.0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37,000 (+4.2)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17.9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브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LG화학 (051910)	317,500 (-6.6)	340,000 (1/2)	24,430	2,296	1,740	23,666	13.4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석유정제: 정제마진 개선으로 시작하는 한 해

■ 업종 및 종목 투자의견 유지, top-pick은 SK이노베이션

정유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과 유니버스 3개 기업에 대한 매수 의견 및 목표주가를 모두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부진한 4분기 실적 예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2012년 실적은 향후 주가를 판단하는 데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정유 업황에 강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연초 이후 정제마진이 개선되고 있으며 작년과 같은 유가의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아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예상한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가장 수익성이 높은 PX를 포함한 화학사업의 이익비중이 39%로 경쟁사 대비 가장 낮다(2013년 예상치 기준, S-Oil 54%, GS칼텍스 60%). 그러나 2014년 총 230만톤의 대규모 PX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화학사업의 이익비중은 5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 업황개선과 함께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유지한다.

■ 부진한 4분기 보다 향후 실적 개선 여부에 주목

정유 3사의 4분기 실적은 부진하다. 3사(GS는 GS칼텍스 기준)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별로는 정유부문이 97% 감소해 가장 부진하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PX 설비의 정기보수로 인해 건조한 스프레드에도 불구하고 SK종합화학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4% 감소했다. 그러나 1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다. 12월까지 두바이유 가격이 하락한 뒤 회복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입 원유가격을 고려한 1월 마진은 개선세가 뚜렷하다(복합정제마진 7.6달러/배럴→10.7달러/배럴). 정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가 변동성 줄어들면서 정유 부문은 작년보다 나은 실적 기대

정유 사업의 실적은 유가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12년 두바이 원유 가격은 배럴당 최저 89달러에서 최고 124달러까지 수 차례 오르내렸다. 따라서 원유 구매와 생산 설비 투입의 시차 때문에 정제마진에도 큰 변동이 생겼고, 재고 가치의 변화에 따른 손실과 이익도 반복됐다. 원유 가격의 변화는 중동의 정치적 불안과 미국 내 원유 과잉생산 및 재고 증가 등으로 인한 결과다. 석유제품의 수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원유의 공급 측면에서는 작년과 같은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었다. 따라서 정유 사업의 수익성 역시 안정되어 대규모 적자로 인한 실적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제설비 고도화, 화학 및 윤활기유 사업의 확대로 정유사 사업 포트폴리오도 고도화

정유사들이 화학제품과 윤활기유의 생산 확대에 힘쓰면서 정유사업의 이익 기여도는 줄어들고 있다. 정유사업이 본질적으로 유가 변동에 따른 마진 변화가 크다고 볼 때 이러한 시도는 기업의 이익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석유제품 중 가장 수익성이 낮은 중질 유분 및 납사를 이용해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높아졌다. 특히 PX는 장기적으로 수요 초과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중심으로 폴리에스터 수요가 증가하고 TPA의 증설이 계속되는데 비해 상류부문인 정유설비의 증설 속도는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화학 설비의 증설도 에탄 크래커 위주로 집중되며 아로마틱 계열의 공급 증가가 부진해 이런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넥센타이어(002350)

매수(유지)

목표가: 20,000원(하향)

종가(1/17): 13,250원

4Q12 Preview: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 두자리수로 회복

■ EPS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

넥센타이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7,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하향한다. 이는 13년 예상 EPS를 15% 하향하고,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목표 PER을 15배에서 13배로 낮췄기 때문이다. 실적 추정치 하향은 1) R&D 비용의 매출액 비중 상승(2.2% → 2.8%), 2) 예상보다 큰 미국시장 RE 판매 위축으로 SG&A 비용 증가(2,012억원 → 2,124억원), 3) 13년 평균 원/유로 환율 예상치 하향(1,421원 → 1,406원)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12년 9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해 바닥권에 근접한 반면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최근 주가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비용이 증가해도 13년 영업이익률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창녕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2년 연속 두자리수를 지속할 전망이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8.7배인데 EPS 증가율은 10.6%이다.

■ 1분기 영업이익률 11.5%로 회복할 전망

4분기 원자재 투입단가는 전분기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말 성과급 160억원과 판촉비 증가로 4분기 매출액은 4,555억원(+13.6% YoY), 영업이익률은 8%(vs 컨센서스 9.4%)로 12년 3분기 11.4%보다 낮을 전망이다. 한편 천연고무 가격은 4분기 평균 톤당 2,999달러로 전분기대비 4.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평균 합성고무 가격은 2,952달러로 12.4% 하락했다. 이로써 원자재 투입단가 하락세가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는 성과급 부채로 두자리수 영업이익률로 회복하고, 2분기에는 미국시장 수요 회복으로 11.7%까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 OE 판매가 성장 견인할 전망

동사는 신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로 9월부터 Mitsubishi의 Lancer(중형세단)에 OE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유럽 완성차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주로 해외 OE 판매는 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13년 이미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50만본으로 Mitsubishi 25만본(vs 12년 7만본), Fiat 25만본이다. 또한 동사의 중국공장은 11년 4월부터 Beijing Hyundai의 신형 Verna와 JAC의 compact car에 공급하고 12년 10월부터 기아의 K3에도 공급한다. 그 결과 중국공장의 내수 OE 비중은 11년 4%, 12년 10%, 13년 15%까지 늘어나며 RE 비중은 1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148.6	136.6	130.9	107.2	1,057	(6.2)	180.0	12.5	9.3	2.8	24.3
2011A	1,430.0	112.0	113.1	87.8	865	(18.1)	166.0	15.3	12.3	2.4	16.7
2012F	1,745.5	190.4	179.8	139.4	1,374	58.8	278.9	9.6	8.2	2.1	23.0
2013F	1,939.4	207.1	198.8	154.1	1,519	10.6	313.6	8.7	7.0	1.7	21.3
2014F	2,165.6	229.0	223.0	172.8	1,704	12.2	330.5	7.8	6.3	1.4	19.6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와이솔(122990)

매수(유지)

목표가: 20,000원(유지)

종가(1/17): 12,450원

4Q12 Preview: 실적부진은 이미 예견된 일

■ 4분기는 피할 수 없는 재고조정으로 아픈 시기

와이솔의 4분기 실적은 기존의 우리 예상치(매출액 320억원, 영업이익 43억원)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약 240억원(-36.5%QoQ, -17.7%YoY)의 매출액과 미미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는 1) 신년 모델 체인지를 위한 가전업체의 재고조정으로 TV용 블루투스 모듈 출하량 급감(전 분기 대비 70% 이상 감소 추정), 2) 지속적인 캐파 증설을 통한 감가상각비 부담 증가, 그리고 3) 신규 사업 및 기존의 소필터 강화를 위해 충원한 인력의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에 기인한다. 이미 지난 3분기부터 4분기 실적 우려로 영업이익을 14% 하향 조정했고 또 한차례 영업적자까지 추정하게 된 이번 실적 부진은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13년 제품 다변화를 통한 외형성장에 주목

올해 동사는 꼭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대량의 물량이 발생할 수 있는 백색가전용 모듈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 외형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매출은 수익성이 좋은 소필터와 개당 판가가 소필터 단품 대비 30배 이상 높은 블루투스 모듈이 양분을 하고 있다. 블루투스 모듈을 출시한 2011년에 모듈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2010년 대비 61.4%의 외형성장을 달성했다. 따라서, 올해도 소필터 모듈,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신규 제품이 동사의 규모를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추정된다. 2013년 신규 제품을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두 모듈 사업부의 매출 기여도는 2012년 45.9%에서 2013년 57.5%까지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33.8%의 전체 외형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중국 및 신제품 모멘텀으로 주가 회복 예상

중국 로컬 휴대폰 업체들의 스마트폰 경쟁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더등록이 완료된 ZTE에 저가폰이지만 샘플이 아닌 양산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말 안에 신제품 및 대량 공급이 가능한 제품으로 매출 안정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올해는 중국 산자이 시장 보다는 대형 휴대폰 업체와 거래하는 중국 대리점을 통해 스마트폰용 소필터 또는 듀플렉서 공급에 주력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및 신제품 모멘텀에 따른 주가 회복을 긍정적으로 예상한다. 2013년 실적은 매출액 1,616억원(+33.8%YoY), 영업이익 161억원(+37.0%YoY)으로 추정하며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20,000원을 유지한다. 현 주가는 2013F EPS 기준 PER 8.9배로 투자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66	13	14	11	1,256	31.9	18	7.0	5.7	2.5	41.4
2011A	107	12	10	10	932	(25.8)	21	17.7	9.7	3.6	23.5
2012F	121	12	12	12	1,072	15.0	22	11.8	7.0	2.3	22.8
2013F	162	16	16	16	1,398	30.4	24	8.9	6.1	1.9	24.1
2014F	188	20	20	19	1,740	24.4	27	7.2	5.3	1.5	24.0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01/17(목)	01/18(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6.67	2,007.04	1,983.74	1,977.45	1,974.27	1,987.85
	등락폭	-10.13	10.37	-23.30	-6.29	-3.18	13.58
	등락종목						
	상승(상한)	372(9)	421(19)	264(11)	346(13)	345(4)	546(11)
	하락(하한)	444(0)	385(1)	538(2)	468(3)	451(2)	243(1)
	ADR	108.57	109.49	104.03	99.52	98.57	104.81
	이격도						
	10 일	99.58	100.00	98.90	98.85	98.92	99.72
	20 일	100.06	100.47	99.29	99.03	98.93	99.59
	투자심리	40	40	30	20	20	3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467	450	542	453	806	576
	거래대금 (십억 원)	4,364	4,280	4,376	4,228	4,031	3,830
	코스닥지수	515.42	513.44	508.02	507.68	506.35	512.24
	등락폭	0.94	-1.98	-5.42	-0.34	-1.33	5.89
	등락종목						
	상승(상한)	451(11)	387(11)	293(14)	413(17)	384(14)	634(12)
	하락(하한)	469(1)	558(1)	626(3)	522(1)	543(2)	281(0)
	ADR	110.83	112.58	107.51	102.22	99.13	106.03
	이격도						
	10 일	101.99	101.17	99.88	99.69	99.29	100.30
	20 일	104.18	103.45	102.12	101.87	101.46	102.36
	투자심리	90	80	7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36	438	490	478	517	469
	거래대금 (십억 원)	2,045	1,803	1,848	1,949	1,986	1,653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50.3	1,058.8	806.8	189.5	103.8	222.9	34.2	29.8	207.6	43.6
	매도	1,965.2	1,027.3	821.7	183.8	99.6	215.7	37.4	24.1	242.3	45.4
	순매수	-14.8	31.5	-14.9	5.7	4.2	7.2	-3.2	5.7	-34.7	-1.8
	01 월 누계	625.7	-139.7	-417.0	-256.0	189.5	-456.7	-125.7	-1.5	241.9	-68.9
	13 년 누계	625.7	-139.7	-417.0	-256.0	189.5	-456.7	-125.7	-1.5	241.9	-68.9
코스닥	매수	1,509.1	73.4	71.2	10.3	9.9	21.7	4.6	2.1	19.1	17.8
	매도	1,540.8	59.7	55.0	7.7	7.0	14.1	3.4	2.4	18.3	16.0
	순매수	-31.7	13.8	16.2	2.6	2.8	7.6	1.2	-0.3	0.8	1.8
	01 월 누계	-93.6	9.6	92.2	16.6	10.7	55.4	6.3	-2.5	9.4	-8.1
	13 년 누계	-93.6	9.6	92.2	16.6	10.7	55.4	6.3	-2.5	9.4	-8.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16,435	서비스업	-23,098
보험	11,315	전기,전자	-11,671
금융업	5,717	화학	-7,587
우리투자증권	9,257	SK	-24,496
삼성생명	8,778	SK하이닉스	-6,028
삼성증권	7,912	삼성SDI	-3,461
SK이노베이션	7,447	삼성중공업	-3,246
한전KPS	4,571	CJ제일제당	-3,17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27,368	전기,전자	-56,977
금융업	21,650	유통업	-15,921
증권	10,381	서비스업	-14,015
삼성생명	26,537	삼성전자	-28,347
우리금융	11,283	SK하이닉스	-26,681
삼성증권	9,914	NHN	-9,303
한국전력	8,910	GS	-5,584
SK이노베이션	8,717	SK	-4,81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2,603	전기,전자	-541
건설업	1,723	금융업	-274
서비스업	1,223	종이,목재	-236
LG전자	3,646	삼성전자	-4,563
SK텔레콤	2,786	현대차	-1,047
GS건설	2,571	TIGER 200	-571
KODEX 레버리지	1,474	백산건설	-544
메리츠화재	1,031	GS	-52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11,798	전기,전자	-8,228
보험	5,359	서비스업	-4,636
증권	4,467	유통업	-4,098
우리금융	6,833	삼성전자	-4,975
삼성중공업	4,466	GS	-3,798
삼성증권	3,895	현대백화점	-3,369
SK이노베이션	3,275	SK하이닉스	-3,144
삼성생명	3,267	SK	-2,92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58,215	전기,전자	-92,792
증권	32,866	서비스업	-30,283
금융업	32,861	유통업	-19,320
삼성생명	43,100	삼성전자	-46,410
SK이노베이션	27,364	SK하이닉스	-40,058
삼성증권	23,626	SK	-32,178
우리금융	16,401	GS	-15,604
KODEX 200	13,530	호텔신라	-8,189
한국전력	13,393	롯데쇼핑	-7,251
SK텔레콤	12,055	기아차	-7,214
KODEX 인버스	11,112	삼성SDI	-6,617
우리투자증권	10,350	대한항공	-6,282
현대모비스	9,731	NHN	-6,10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6,948	서비스업	-24,672
유통업	19,045	증권	-22,528
화학	13,931	운수창고	-9,916
삼성전자	30,534	SK이노베이션	-31,504
현대차	21,245	기아차	-18,416
삼성생명	15,401	삼성증권	-15,187
롯데케미칼	10,498	KODEX 200	-14,428
롯데쇼핑	9,061	SK텔레콤	-11,538
KT	8,485	현대모비스	-8,973
KB금융	8,014	SK	-6,236
현대백화점	7,627	우리투자증권	-5,903
SK하이닉스	6,646	POSCO	-5,659
LG디스플레이	6,211	한국전력	-5,30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2,994	화학	-554
반도체	2,879	디지털컨텐츠	-378
오락,문화	1,365	기계,장비	-178
서울반도체	3,519	파트론	-900
하나투어	2,844	솔브레인	-897
CJ오쇼핑	1,471	KG이니시스	-532
옵트론텍	1,058	실리콘웍스	-530
파라다이스	998	KH바텍	-50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9,115	IT부품	-3,904
출판,매체복제	1,073	방송서비스	-842
전문기술	792	기계,장비	-763
서울반도체	7,975	인터플렉스	-2,525
루멘스	1,211	셀트리온	-796
에스엠	1,154	플렉스컴	-768
옵트론텍	651	포스코엠텍	-763
CJ E&M	599	파트론	-74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256	IT부품	-507
전문기술	247	화학	-321
디지털컨텐츠	207	도매	-213
컴투스	233	옵트론텍	-461
CJ E&M	224	나노신소재	-327
비에이치아이	204	씨티씨바이오	-172
MDS테크	188	SK브로드밴드	-133
서부T&D	102	휴맥스	-10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2,562	방송서비스	-1,330
반도체	1,426	금속	-688
IT부품	1,367	운송장비,부품	-446
파라다이스	2,540	CJ오쇼핑	-1,387
옵트론텍	1,565	포스코엠텍	-718
서울반도체	1,343	성우하이텍	-448
이녹스	1,278	툽텍	-430
골프존	552	서부T&D	-321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6,613	방송서비스	-1,347
사업지원	4,058	기계,장비	-1,260
오락,문화	4,034	금속	-1,116
서울반도체	15,516	인터플렉스	-2,825
옵트론텍	4,208	파트론	-2,007
하나투어	4,030	포스코엠텍	-1,768
파라다이스	3,237	웰크론한텍	-1,300
이녹스	1,893	셀트리온	-1,181
루멘스	1,861	KH바텍	-1,127
CJ E&M	1,475	솔브레인	-1,064
에이블씨엔씨	1,102	KG이니시스	-955
에스엠	847	실리콘웍스	-880
네오위즈	808	GS홈쇼핑	-86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6,293	디지털컨텐츠	-6,490
기계,장비	2,838	사업지원	-3,781
반도체	2,114	오락,문화	-1,997
비에이치	1,691	네오위즈게임즈	-7,877
한국사이버결제	1,449	하나투어	-4,040
에스에프에이	1,317	파라다이스	-2,562
CJ오쇼핑	1,099	코미팜	-2,522
서울반도체	1,078	에스엠	-1,852
오스템임플란트	928	씨앤케이인터	-678
덕산하이메탈	881	성우하이텍	-570
셀트리온	876	멜파스	-489
솔브레인	848	원익IPS	-485
GS홈쇼핑	753	씨젠	-42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TIGER	원유선물(H)	21	일	현대건설				34	일
삼성생명		12	일	신도리코				17	일
한솔제지		11	일	한국셀석유				13	일
금호전기		10	일	에스엘				13	일
한전기술		9	일	롯데쇼핑				13	일
KODEX	10년국채선물	9	일	현대백화점				12	일
현대미포조선		8	일	삼영전자				10	일
LG디스플레이		8	일	LG생명과학				9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22 일	메가스터디	29 일
하나투어	12 일	주성엔지니어링	5 일
성광벤드	9 일	평화정공	5 일
하이록코리아	8 일	한진피앤씨	5 일
오스템임플란트	7 일	한국정밀기계	5 일
젬백스	5 일	동진씨미켄	4 일
태광	4 일	포스코엡텍	4 일
SDN	4 일	동서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생명	117,019	롯데케미칼	45,621
SK텔레콤	80,515	SK하이닉스	38,683
현대차	71,238	고려아연	37,063
LG디스플레이	67,461	롯데쇼핑	33,167
한국전력	65,510	현대백화점	30,397
현대모비스	60,951	KB금융	25,860
삼성증권	56,678	삼성생명	24,921
우리금융	55,411	NHN	20,494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하나투어	16,118	파트론	12,240
네오위즈게임즈	11,393	CJ오쇼핑	6,559
CJ E&M	8,438	인터플레이스	5,475
성광벤드	6,961	다음	4,832
SK브로드밴드	6,482	동서	4,540
옵트론텍	4,373	CJ E&M	3,938
휴맥스	3,885	셀트리온	3,136
네오위즈	3,686	홈캐스트	2,571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보험		58,215	3,930 62,144
금융업		32,861	8,177 41,038
건설업		3,143	4,540 7,684
삼성생명		43,100	15,401 58,501
KB금융		5,648	8,014 13,662
KODEX 인버스		11,112	988 12,100
롯데케미칼		818	10,498 11,315
신한지주		4,704	5,047 9,751
LG전자		3,860	5,225 9,085
LG디스플레이		1,815	6,211 8,025
하나금융지주		4,017	2,392 6,409
GS건설		3,628	671 4,299
빙그레		2,207	30 2,23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16,613	2,114 18,727
전문기술		2,977	364 3,341
소프트웨어		40	1,981 2,021
서울반도체		15,516	1,078 16,594
옵트론텍		4,208	699 4,907
이녹스		1,893	317 2,210
비에이치		370	1,691 2,061
루멘스		1,861	5 1,866
CJ E&M		1,475	304 1,779
에스에프에이		235	1,317 1,553
오스템임플란트		509	928 1,437
제이콘텐트리		734	670 1,404
다음		54	751 80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SDI	15 일	삼성화재	12 일	씨애헤이인터	25 일	SK컴즈	9 일
동부제철	15 일	엔씨소프트	12 일	인터플렉스	13 일	하나투어	8 일
삼성정밀화학	13 일	외환은행	11 일	포스코엠텍	10 일	다날	8 일
롯데쇼핑	13 일	삼성테크윈	10 일	네오위즈게임즈	10 일	쌍용건설	7 일
TIGER 200	13 일	한일시멘트	9 일	STS반도체	6 일	KCC건설	6 일
현대건설	11 일	조선내화	8 일	시그네틱스	5 일	디지털시스템	6 일
대우증권	11 일	동아타이어	8 일	CJ오쇼핑	5 일	씨애헤이인터	5 일
현대중공업	11 일	현대미포조선	8 일	테크노세미켄	5 일	이트레이드증권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32,198	삼성전자	-131,321	인터플렉스	-13,393	네오위즈게임즈	-33,898
SK하이닉스	-111,933	LG디스플레이	-75,147	포스코엠텍	-8,928	하나투어	-17,953
KODEX 레버리지	-75,374	SK이노베이션	-70,082	멜파스	-7,313	네오위즈	-6,019
현대중공업	-45,648	SK텔레콤	-59,478	CJ오쇼핑	-7,095	파라다이스	-4,383
GS	-38,117	한국전력	-48,266	웰크론한텍	-5,063	코미팜	-3,915
삼성SDI	-35,412	KODEX 200	-35,871	씨젠	-4,515	씨애헤이인터	-2,563
NHN	-31,848	LG화학	-29,873	인터파크	-4,365	씨젠	-2,401
현대위아	-29,018	삼성증권	-28,630	이엘케이	-4,194	에스맥	-2,37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서비스업	-30,283	-24,672	-54,955	디지털컨텐츠	-524	-6,490	-7,013
운수장비	-11,390	-5,540	-16,930	금속광업	-808	-678	-1,487
제조업	-4,885	-391	-5,276	제약	-1,025	-310	-1,334
SK	-32,178	-6,236	-38,414	네오위즈게임즈	-29	-7,877	-7,906
기아차	-7,214	-18,416	-25,630	씨애헤이인터	-808	-678	-1,487
KODEX 레버리지	-4,087	-5,059	-9,145	성우하이텍	-782	-570	-1,352
KT&G	-4,859	-652	-5,510	실리콘웍스	-880	-20	-901
LG패션	-3,926	-531	-4,458	멜파스	-257	-489	-746
제일모직	-2,890	-1,533	-4,423	플렉스컴	-180	-380	-561
대우조선해양	-2,439	-1,495	-3,935	씨젠	-96	-426	-522
현대글로벌비스	-80	-3,404	-3,484	STS반도체	-346	-168	-514
SKC	-766	-1,834	-2,600	미래나노텍	-84	-404	-487
넥센타이어	-865	-1,668	-2,533	나노신소재	-329	-10	-33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OCI	130	23,256
롯데하이마트	333	22,482
POSCO	32	11,333
삼성전자	8	11,157
SK하이닉스	297	7,689
기아차	120	6,643
KODEX 200	223	5,841
KT	154	5,68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크로바하이텍	158	1,094
차바이오텐	77	786
알에프텍	54	696
오로라	122	687
인터플렉스	14	600
씨티씨바이오	24	586
성광벤드	23	536
한글과컴퓨터	24	526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992	5,864,010
POSCO	8,804	3,129,653
LG전자	39,745	2,933,200
OCI	9,372	1,668,190
NHN	3,810	893,439
현대차	3,964	842,313
SK하이닉스	22,036	570,720
현대중공업	2,184	496,78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407	683,952
서울반도체	6,073	155,465
에스엠	1,682	78,190
덕산하이메탈	3,080	71,458
다음	456	46,974
차바이오텐	3,946	40,249
게임빌	364	37,306
에이블씨엔씨	438	34,632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15,109	철강및금속	-476
기계	3,402	전기가스업	-392
운수창고	2,810	의료정밀	-131
우리금융	8,479	한화케미칼	-3,456
KB금융	4,162	한진해운	-1,161
현대상선	3,458	케이피케미칼	-863
두산인프라코어	3,435	롯데케미칼	-630
웅진케미칼	2,427	현대중공업	-606
기아차	1,387	SK하이닉스	-530
금호타이어	1,325	POSCO	-528
신한지주	1,219	오리엔트바이오	-511
LG디스플레이	1,087	SK네트웍스	-361
하나금융지주	970	강원랜드	-36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금융	874	오락,문화	-565
디지털컨텐츠	560	통신장비	-328
소프트웨어	452	섬유,의류	-286
한국토지신탁	874	파라다이스	-565
네오위즈게임즈	665	멜파스	-483
서희건설	269	케이디씨	-473
서울반도체	170	좋은사람들	-298
휴맥스	164	우리기술	-201
3S	161	AJS	-148
성광벤드	149	네오위즈인터넷	-135
코엔텍	138	코미팜	-96
인피니트헬스케어	130	STS반도체	-90
KG이니시스	130	파트론	-5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14(월)	01/15(화)	01/16(수)	01/17(목)	01/18(금)
외국인	-139.7	-139.7	-488.1	-92.0	-224.8	-88.4	-114.3	31.5
기관계	-417.0	-417.0	139.4	98.5	44.3	-35.2	46.7	-14.9
(투신)	-456.7	-456.7	-61.5	-17.6	-71.7	21.5	-0.9	7.2
(연기금)	278.0	278.0	195.8	82.4	57.2	22.8	65.8	-32.5
(은행)	-1.5	-1.5	-17.6	-2.7	-11.5	-4.9	-4.2	5.7
(보험)	189.5	189.5	12.9	2.6	29.9	-11.7	-12.0	4.2
개인	625.7	625.7	390.3	3.1	184.0	131.7	86.3	-14.8
기타	-68.9	-68.9	-41.6	-9.6	-3.5	-8.1	-18.7	-1.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01/17(목)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96.67	2,007.04	1,983.74	1,977.45	1,974.27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685.9	17757.8	18177.3	18209.5	17680.3
(증감액)	2735.7	1996.5	3611.7	-325.8	71.9	419.5	32.2	-529.2
(회전율)	52.6	51.5	34.2	36.8	34.7	34.7	34.4	34.9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277.7	88.8	567.8	22.8	-344.0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025.0	4051.2	4076.7	4100.1	4102.2
미수금	240.2	192.3	187.7	172.3	153.0	160.1	165.6	186.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01/17(목)
전체 주식형	93,661	-765	-765	-43	-104	-162	65	-53
(ex. ETF)		-915	-915	2	-27	-61	19	-42
국내 주식형	67,871	-501	-501	-22	-85	-143	86	-27
(ex. ETF)		-655	-655	23	-9	-42	40	-17
해외 주식형	25,790	-265	-265	-21	-19	-20	-21	-26
(ex. ETF)		-260	-260	-21	-19	-20	-21	-25
주식 혼합형	9,864	-135	-135	-9	-21	-7	-2	-1
채권 혼합형	19,254	60	60	-3	-33	3	177	6
채권형	47,549	254	254	-2	-71	-16	131	32
MMF	77,606	14,448	14,448	1,015	446	984	3,310	47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14(월)	01/15(화)	01/16(수)	01/17(목)	01/18(금)
한 국	-134	-134	-125	-87	-212	-84	-108	29
대 만	-78	-78	337	-54	-130	-144	116	118
인 도	2,176	2,176	431	185	-	202	-	-
인도네시아	353	353	-153	48	36	49	10	-
태국	296	296	-296	66	17	20	22	-
남아공	-127	-127	-421	-5	-179	-126	-112	-
필리핀	455	455	2	-23	4	-7	1	26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1/11(금)	01/14(월)	01/15(화)	01/16(수)	01/17(목)	01/18(금)
회사채 (AA-)	3.29	3.23	3.25	3.21	3.21	3.19	3.20
회사채 (BBB-)	8.80	8.73	8.75	8.72	8.72	8.71	8.72
국고채 (3년)	2.82	2.74	2.76	2.76	2.74	2.73	2.75
국고채 (5년)	2.97	2.86	2.88	2.84	2.84	2.83	2.85
국고채 (10년)	3.16	3.05	3.04	3.01	3.02	3.00	3.02
미 국채 (10년)	1.76	1.87	1.84	1.84	1.82	1.88	-
일 국채 (10년)	0.80	0.82	0.82	0.78	0.76	0.74	-
원/달러	1,070.60	1,054.70	1,056.10	1,056.50	1,058.70	1,058.10	1,057.20
원/엔	1,243.73	1,182.00	1,178.69	1,188.00	1,200.00	1,198.00	1,174.00
엔/달러	86.08	89.23	89.60	88.94	88.24	88.32	90.11
달러/유로	1.32	1.34	1.34	1.33	1.32	1.32	1.33
DDR3 1Gb (1333MHz)	0.67	0.68	0.68	0.68	0.68	0.68	-
NAND Flash 16Gb (MLC)	1.89	1.92	1.92	1.92	1.92	1.92	-
CRB 지수	295.01	296.66	298.12	297.63	298.20	300.33	-
LME 지수	3,454.5	3,505.3	3,469.4	3,471.8	3,453.00	3,489.1	-
BDI	699	760	762	765	781	820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3.56	94.14	93.28	94.24	95.49	-
금 (달러/온스)	1,663.40	1,660.60	1,660.10	1,683.90	1,683.20	1,690.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월 14일	264.80	266.40	1.22	1.60	1.81	159,835	112,052	2,221
1월 15일	261.43	263.40	1.18	1.97	1.30	226,067	110,724	-1,328
1월 16일	260.49	261.45	1.16	0.96	1.45	185,632	108,917	-1,807
1월 17일	260.10	261.95	1.14	1.85	1.35	206,063	108,418	-499
1월 18일	261.71	262.65	1.14	0.94	1.36	176,178	109,327	909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월 14일	2,255	-229	-2,124	-2,216	261	133	-145	1
1월 15일	-3,589	759	3,330	3,244	37	-158	156	-3
1월 16일	-1,218	717	1,010	120	1,059	-180	-73	6
1월 17일	80	-66	-143	-273	726	-98	-444	-1
1월 18일	-3,121	1,833	1,093	574	291	168	46	4
누적포지션	-16,614	15,129	2,048	4,338	-2,233	554	-779	163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월 14일	587	803	216	570	780	211	17	23	5	4,710	10,099
1월 15일	1,010	742	-268	845	732	-113	165	10	-155	4,713	9,949
1월 16일	866	696	-170	678	679	1	189	18	-171	4,709	9,839
1월 17일	753	669	-84	627	659	32	126	10	-116	4,747	9,789
1월 18일	579	674	96	554	671	118	25	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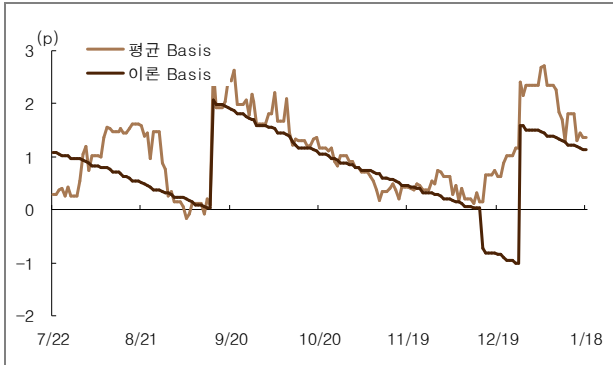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3.07	229	108,591	0.68	272.50	11.15	356	102	14.50
13.17	1,496	137,371	1.12	270.00	9.05	668	52	14.12
13.52	3,619	107,649	1.81	267.50	7.20	1,377	-25	14.14
13.36	702	75,673	2.60	265.00	5.50	6,479	-212	13.94
13.62	468	14,028	3.75	262.50	4.15	11,917	340	14.17
13.87	149	7,898	5.15	260.00	3.05	20,372	622	14.41
14.16	120	1,967	6.80	257.50	2.17	115,884	1,805	14.62
14.42	-38	504	8.65	255.00	1.55	117,211	1,938	15.06
15.64	17	71	10.85	252.50	1.07	109,022	1,688	15.39
13.47	33	88	12.65	250.00	0.76	108,307	1,060	15.97
13.46	4	78	14.95	247.50	0.51	66,083	1,599	1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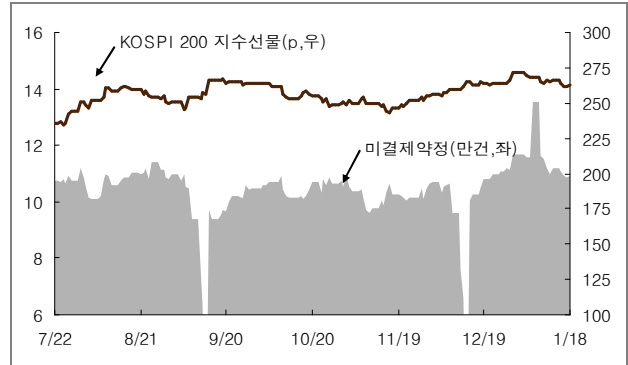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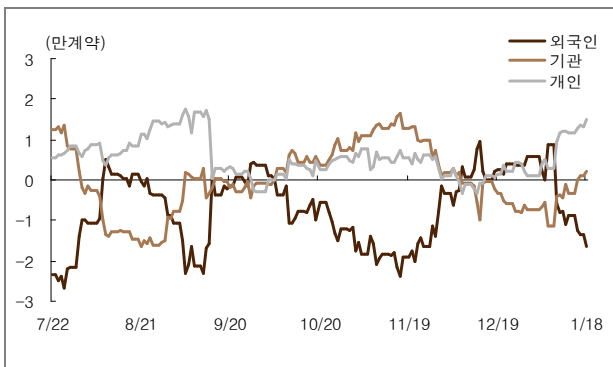
- 평균 Basis: 1.36 (전 거래일 대비 0.01 상승)
- 이론 Basis: 1.14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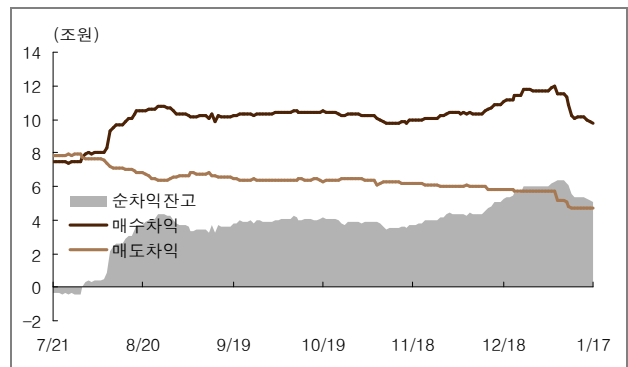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909 계약 증가한 109,327 계약
- 선물가격(262.65): 전 거래일 대비 0.70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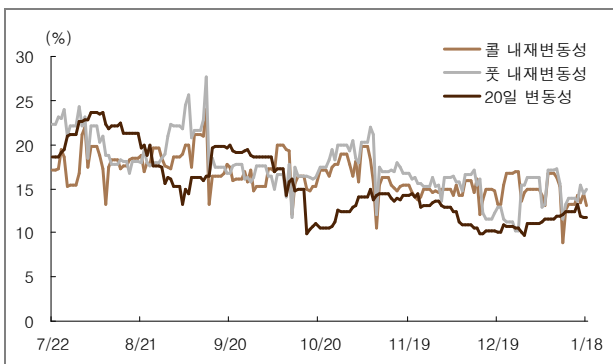
- 외국인: 3,121 계약 순매도
- 기관: 1,093 계약 순매수 / 개인: 1,833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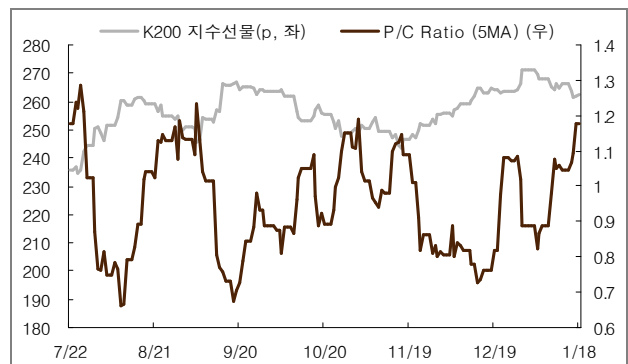
- 차익거래: 221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1,176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3.0% / 풋 14.9%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1.80%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18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4	15	16	17	18
유럽> 11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0.3%, 0.2%, -1.4%)	美> 12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0.5%, 0.2%, 0.3%)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3%, 1.4%, 1.5%) 유럽> 1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11.0B, 8.0B, 7.9B) 日> 12월 통화량 M2 YoY (2.6%, 2.1%, 2.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5.2%, n/a, 11.7%)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7%, 1.8%, 1.8%) 12월 산업생산 YoY (0.3%, 0.3%, 1.1%)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47, 48, 47) 中> 12월 실질 FDI YoY (-4.5%, -2.0%, -5.4%)	韓>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2%, n/a, -0.2%)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5만, 36.9만, 37.1만) 12월 건축 허가 MoM (0.3%, 0.5%, 3.6%) 12월 주택건설 착공 MoM (12.1%, 3.3%, -3.0%)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5.8, 5.6, 8.1)	美> 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평가지수 (n/a, 75.0, 72.9) 中> 4Q 실질 GDP YoY (7.9%, 7.8%, 7.4%) 12월 산업생산 YoY (10.3%, 10.2%, 10.1%) 12월 소매판매 YoY (15.2%, 15.1%, 14.9%)
21	22	23	24	25
韓> 12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1.7%) 12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9.1%) 유럽> (21-22)유로존/EU 재무장관회의	美> 12월 기준주택매매 MoM (n/a, 1.2%, 5.9%) 日> BOJ 정책금리 (n/a, n/a, 0.10%) 실적발표> 美 토폰,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델타에어라인스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15.2%) 11월 주택가격지수 MoM (n/a, 0.7%, 0.5%) 유럽>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잠정치) (n/a, -25.8, -26.5) 실적발표> 美 IBM*, 구글*, 맥도날드,	韓> 4Q GDP QoQ (잠정치) (n/a, 0.5%, 0.1%)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0만, 33.5만) 12월 경기선행지수 (n/a, 0.3%, -0.2%) 유럽> 11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n/a, n/a, 3.9B) 1월 PMI 제조업 (잠정치) (n/a, 46.8, 46.1) 1월 PMI 서비스 (잠정치) (n/a, 48.0, 47.8) 中> 1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n/a, n/a, 51.5) 日> 12월 수출 YoY (n/a, -4.0%, -4.1%) 12월 수입 YoY (n/a, 2.9%, 0.9%) 실적발표> 韓 엘지디스플레이, 현대차 美 애플*, 넷플릭스, 쓰리엠	美> 12월 신규주택매매 MoM (n/a, 1.3%, 4.4%) 日> 12월 국내 CPI YoY (n/a, -0.2%, -0.2%) 실적발표> 韓 삼성카드, 삼성테크윈, 기아차 美 AT&T*, 마이크로소프트*, P&G
28	29	30	31	1
韓> 1월 소비자대지수 美> 12월 내구재 주문 MoM 12월 미경주매매 MoM 中> 12월 선행지수 (미확정) 실적발표> 韓 삼성엔지니어링 美 캐터필러	韓> 2월 BSI 제조업 2월 BSI 비제조업 美> 11월 S&P/CS 주택가격지수 1월 소비자대지수 실적발표> 韓 포스코, LG화학 美 야후!, 코닝, 화이자, 포드	韓> 12월 경상수지 경상수지 12월 산업생산 YoY 1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월 ADP 취업자 변동 4Q 연간화 GDP QoQ (잠정치) FOMC 금리 결정 실적발표> 韓 LG전자, LG유플러스 美 아마존닷컴*, 보잉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개인소득 MoM 12월 개인소비지수 MoM 日> 12월 산업생산 YoY (잠정치) 12월 자동차생산 YoY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페이스북, 비아콤, 닌텐도, 캐시컬	韓>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월 수출 YoY 1월 수입 YoY 美> 1월 비농가 고용자수 MoM 1월 실업률 1월 ISM 제조업 12월 건설지출 MoM 유럽> 12월 유로권 실업률 中> 1월 제조업 PMI 1월 HSBC 제조업 PMI 日> 12월 실업률 실적발표> 美 엑스모빌, 세브론, 타이슨 푸드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